

주일 예배 10시 50분

2018년 4월 29일(다섯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목상

<b>예배로의 부름</b>		인도: 김성진 집사
<b>찬양</b>		
<b>*기도</b>	주기도문	다 함께
<b>*찬송</b>	만유의 주재(32장)	다 함께
<b>*교독문</b>	78번	다 함께
<b>*찬송</b>	주의 피로 이룬 샘물(266장)	다 함께
<b>기도</b>		현윤경 집사
<b>찬송</b>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202장)	다 함께
<b>말씀</b>		고명환 목사
-신앙의 길 6: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누가복음 13장 22-30절)		
<b>*찬송</b>	구원으로 인도하는(521장)	다 함께
<b>교회소식</b>		담당자
<b>기도</b>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금주 읽을 성경: 시편 39-45편, 빌립보서, 골로새서, 아가서

-5월 기도 담당: 김동진 형제(6일), 김성진 집사(13일), 현윤경 집사(20일)  
장연재 형제(27일)

-우리의 기도:

1.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좁은 길**

형제야!

나는 이 좁은 길을

오직 내가 걸어가야만 할 길로서

알고 또 되새기면서 지내고자 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나의 주님만을

진정 사랑하고만 싶다면 말입니다.

그 언제나 나와 주님을 둘 다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만이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나를 알 때에

이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하고픈 분이요.

나는 미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내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의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송하고 찬송하렵니다.

이 좁은 길에서만 말입니다

나의 주님

임 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죄사함을 값없이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나를 불러 주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받은 자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보좌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  
언제나 행복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한 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길 이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내 주님 한분 모시고  
강함 속에서 살립니다.

주님께 속한 자

김은영

새봄이 오는 것처럼  
내 영혼도 새롭게 변화 되었습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주님께만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  
다.

주님께 속함이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께 속함으로 오는 평안함!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께 속하고 나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연약함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  
다.

비록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께만 속한 군사된 자로  
아름답게 서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4월 29일(17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ui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